# 리지 회귀분석 결과 해석

## 절편(Intercept)

비표준화 계수: 2.989

설명: 모든 독립변수가 0일 때, 종속변수(행복도)의 예상 값은 2.989입니다.

## 경제자본

평균: 3.265, 표준편차: 0.822

표준화 계수: 0.067, 비표준화 계수: 0.081

해석: 경제자본이 1단위 증가할 때, 행복도는 0.081만큼 증가합니다.

## 지식자본

평균: 3.216, 표준편차: 0.877

표준화 계수: 0.111, 비표준화 계수: 0.127

해석: 지식자본이 1단위 증가할 때, 행복도는 0.127만큼 증가합니다.

## 문화자본

평균: 3.208, 표준편차: 0.827

표준화 계수: -0.034, 비표준화 계수: -0.041

해석: 문화자본이 1단위 증가할 때, 행복도는 0.041만큼 감소합니다.

## 사회자본

평균: 2.845, 표준편차: 0.747

표준화 계수: 0.179, 비표준화 계수: 0.239

해석: 사회자본이 1단위 증가할 때, 행복도는 0.239만큼 증가합니다.

## 정서자본

평균: 3.257, 표준편차: 0.856

표준화 계수: 0.173, 비표준화 계수: 0.202

해석: 정서자본이 1단위 증가할 때, 행복도는 0.202만큼 증가합니다.

## 사회정서자본

평균: 9.222, 표준편차: 3.361

표준화 계수: 0.361, 비표준화 계수: 0.107

해석: 사회정서자본이 1단위 증가할 때, 행복도는 0.107만큼 증가합니다.

## 요약

- 사회자본과 정서자본은 행복도에 가장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나타났습니다.  
- 문화자본은 유일하게 행복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습니다.  
- 사회정서자본은 높은 표준화 계수를 가지며, 행복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.  
- 모든 변수들은 종속변수(행복도)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며, 리지 회귀분석을 통해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완화하면서도 이들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